

## 實利를 주는 演題選擇과 實習이

### 隨伴되는 講義가 바람직하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학술이사 강 기 봉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사는것 처럼 교육은 나면서 부터 죽을때 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필연적인 사실을 “교육은 졸업과 함께 끝난다”라고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교육이란 노력하는 자에게 공평한 댓가를 준다.

에디슨도 천재란 머리(두뇌)가 1%이고 나머지 99%는 노력이라고 말한것으로 미루어 보면 교육이란 배울려고 노력하는자에게는 풍부한 열매를 안겨줄수 있다.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과 여기에서 나온 경험을 갖고 일생동안 임상에 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다고 보겠다. 국제적인 신속한 교류로 한국의 치과계는 최근에 와서 괄목한만한 발전을 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전이 아직 평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임상에는 풍부한 전문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능력, 풍부한 경험 및 부단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교육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피교육자는 항상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가꾸어야 할 자세이며 교육의 첫째 조건이라 본다.

배우고 싶은 마음,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은 치과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수교육은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임상적으로 때로는 학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주어 임상에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수있게 하는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와 보수교육은 그릇과 그속의 내용물과 같은 함

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좋은 그릇에 좋은 내용물을 담는것이 최선의 결과다. 이 사실은 교육자나 피교육자가 바라는 바이다. 주어진 그릇에 담은 내용물은 여러가지가 될수 있으니 교육여하에 따라 결과가 여러가지라 보겠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런 제목이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생각해 보고져 한다.

첫째 : 보수교육 제목의 선택이다. 교육에는 전문한대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양립되어 있으므로 피교육자들이(특히 보수교육의 경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하고 또 교육자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보수교육의 제목선택과 내용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둘째 : 용어문제다. 치과의사의 졸업년도의 범위는 넓다. 보수교육의 목적은 서술한과와 같이 개업의 들에게 최신지식과 술식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게하느냐다. 그렇다면 선택된 제목에 따라 교육자가 교육하는 내용을 피교육자들이 완전히 이해 하여야 한다. 만일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 그러니 쉬운말을 사용하여 강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강의내용을 청중이 재미있게 완전히 그 내용을 이해 하였다면 그것은 명강의다. 교육자에게 바라는것이 있다면 G.P(General Practice)를 충분히 이해하여 임상에 응용할수 있는 분이던 한다. 치과의 여러 분야(각과)는 오로지 치과환자 한분을 위해 있는것이라고 보면 각 분야가 서로 정확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때 비로서 이상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고 본다. 동일한 진단을 내린 치과질환도 시술자의 지식에 따라 유효적으로 보존적으로 치주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느 方法을 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하는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

셋째 : 시청각을 이용하여 강의하는 방법이다.  
slides를 이용하여 강의자는 손쉽게 청중에 어필  
할수있고 청중은 이해 하기도 쉽다. 이 方法은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Movie Camera로  
교육용 필름을 제작하여 교육하면 slide보다는  
좀더 실제에 가까운 입체적인 교육방법이 될수  
있다고 본다. “百聞而不如一見”이라 했으니 “대  
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용으로 개업의들  
이 꼭 필요로 하는것을 체계있게 제작하거나 수  
입하여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넷째 : 임상에 對한 보수교육임으로 실습이 반  
드시 필요된다. 여러가지 方法을 通하여 이해한  
것을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에 가능한  
한 환자와 같은 여건을 가추어 그 상태에서 실습  
을 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실기적으로 완전히 소  
화가 되어 실제 임상에 이용하여도 실수없이 좋  
은 結果를 얻게 된다.

오늘날 金繼冠은 “도치”시대이다. 어떤 치과기  
공소에 가보면 많은 case들이 있음을 볼수있다.  
만들어진 model과 die preparation된것을 보면  
그 치과의원 치과사의 실력(?)을 어느정도 알  
수있다. 빈틈없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master model도 많다. 그런 경우는 모두가 지  
대치형성 인상채득 master model 제작 및 die  
preparation 교합관계등의 제반과정을 하나 하나  
정확하게 밟은 경우다. 그렇나 러렁지 못한 경우  
도 자주본다. 어떤 기공소의 제작물은 구미에 뒤  
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제반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서한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 보철물을 정착하면 외관상 처음에는 둘  
다 좋게 보일런지 모르나 시간이 경과하면 어느  
것이 성공작이고 어느것이 실패작인가가 뚜렷이  
구별된다. 심는대로 거두는것은 필연적 결과이  
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계획, 정확한 술식  
과정을 밟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여야 하기때문  
에 충분하고 정확한 실습은 보수교육에 꼭 포함  
되어야 한다.

• 치과대학에서 국가고시를 중시하여 교육한다면  
이론에는 밝을수 있으나 임상에는 그렇지 못한  
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기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없이 중요하다. 더구나 보수교육은 실습을  
위주로 해야한다.

다섯째 : 이 네가지가 종합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되면 환자를 치료의자에 앉혀놓고 실제 de-  
monstration까지 하는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최  
종의 비는 보수교육이 산교육이 되어 칫과환자에  
적용되어 국민보건에 이바지 하는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으려면 특별한 과목을 제외하고  
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나 각 도시치과의사회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각 地方의 교육병원을 中心으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세심한 계획됨에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참찰한 後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보수교육의 뚜렷한 목표설  
정을 한후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여 일반 개업의  
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것이 있다. 보  
수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해도 제반여건이 갖추  
어지지 못하면 임상에 그 지식을 응용할수 없다.  
그러니 임상에 응용할수 있게 재료구입등 어려운  
문제점을 체계있고 조직적으로 해결하여 치료에  
임할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주어야 한다. 학술위  
원회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해도 보수교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  
은강의 실습등 입체적 교육方法을 通하여 개업의  
들이 임상에 이용할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해  
도 재료 기구가 없으면 그것 역시 산 보수교육이  
못되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 많다. 특별히 근관치료에 관한 제반 소  
기구와 재료는 거의 불모지의 상태이다. 개업의들  
이 제반재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질수있게  
수시로 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한다.

요즘 Restodent을 재료상에서 크게 선전하여  
치과의사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료가  
과연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재료인가? 아니면  
어느정도의 경우에 이용될수 있는 재료인가를 알  
려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피  
차간에 협동 노력하여 성취하려고 할때 보수교육  
의 참 뜻이 제대로 발휘될수 있다고 한다.

× × × ×